

1/21/18

설교 제목: 여호와를 앙망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40: 12- 31

- (사 40: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 (사 40:13)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 (사 40: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절관주** 욥 38:4, 고전 2:16
- (사 40: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절관주** 사 17:13
- (사 40:16) 레바논은 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 (사 40: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절관주** 사 29:7, 사 30:28
- (사 40: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 (사 40: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 (사 40:20)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절관주** 사 44:10
- (사 40: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 (사 40: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 (사 40:23)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 (사 40:24)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 (사 40: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사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절관주** 시 147:4

(사 40: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 40: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 40: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 40: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절관주** 렘 49:26, 암 8:13

(사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70 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사 40: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사 40:13)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사 40: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의 지혜로 바다와 하늘과 산 그리고 모든 생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 40: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사 40:16) 레바논은 떨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사 40: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유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나라들도 통 안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하기 힘든, 아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해결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 비교합니다.

(사 40: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 40: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 40:20)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장인이 형틀에 부어서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힌 돌덩이나 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당신이 만드신 천지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합니다.

(사 40: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 40: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사 40:23)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 40:24)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귀인과 사사?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다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초개 곧 지푸라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하여 동등하게 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 40: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사 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칠대로 지쳐서 피곤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가리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사 40: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저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응답하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이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거나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사 40: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 40: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는 피곤에 지치고 낙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다 백성에게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모르고 계시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힘들고 지쳐있는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므로 당신 자신이 피곤하거나 곤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내팽겨쳐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 백성들의 처지를 모르거나 도울 지혜가 없어 그들을  
내팽겨쳐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사 40: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는 다는 것'은 원어로 '힘을 바꾼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덧입고 위기를 극복하고 도전하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뀝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힘차게 오르듯 힘찬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음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2018 년이 평탄하고 쉬운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악이 판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고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을 훨훨 날아 오르는 2018 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